

“노동시간 줄이고, 기업 경쟁력 높이고” 현장에서 성과 입증된 「워라밸+4.5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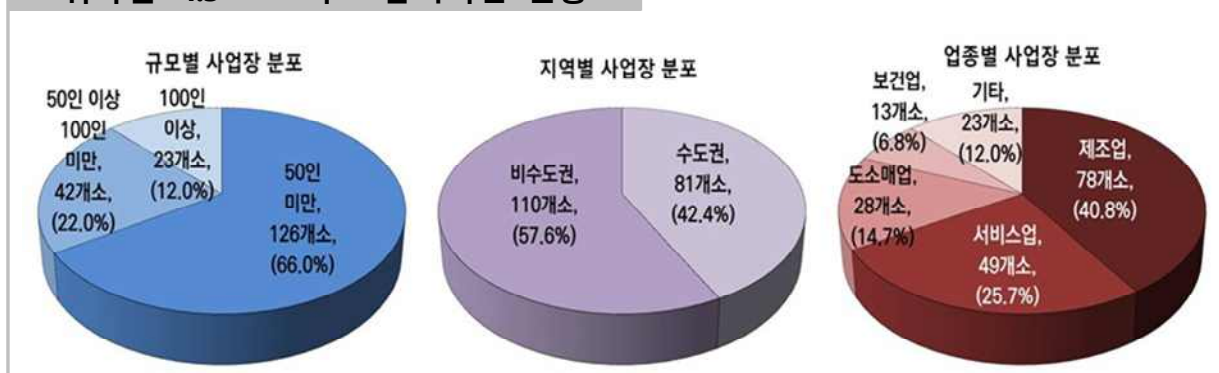
- 고용노동부 차관, (주)유비온 방문하여 노사·전문가 등과 함께
「워라밸+4.5 프로젝트」 성과 공유 및 노동시간 단축 관련 현장 의견 청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6월 18일(목) 14시, 「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 기업인 (주)유비온(서울 구로구 소재)을 방문하여 노사 및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과 함께 주 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 단축 이행·확산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워라밸+4.5 프로젝트」는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첫해 인데도 상반기에 이미 목표의 86.8%가 넘는 기업들이 참여(191개소)하였다. 참여기업을 살펴보면,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66%),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58%)의 비중이 더 높다. 업종별로 제조업(41%)이 가장 많고, 서비스업(26%), 도소매업(15%), 보건업(7%) 등으로 다양하게 참여하였다. 참여기업의 95%(182개소)는 노동시간을 주당 2시간 이상 단축하였고, 그중 주당 4시간 이상 단축한 기업도 44개소(23%)에 달했다.

* 실노동시간 단축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추가) 지원

<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기업 현황>



이날 사례 발표에 참여한 「위라벨+4.5 프로젝트」의 1호 참여 기업인 (주)재담미디어는 “3월부터 주 35시간 근무체계(1일 소정근로시간 1시간 단축)를 도입한 후, 자체 조사 결과 직원의 일·생활 균형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고, 실제 일하는 시간은 줄었지만 업무 효율은 저하되지 않고 오히려 효율성이 높아졌다”라며 노사 모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인 (주)이온엠솔루션은 수도권으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도입한 사례이다.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회사가 되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1월부터 격주로 금요일 오후 4시간 유급휴무를 부여(주 평균 38시간 근무)하되, 그룹웨어 활용 및 압축 근무 등으로 업무 공백은 최소화하였다. 그 결과, 이직자가 크게 줄어들었고, 실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라며, 지방 소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주)유비온은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는 장시간 노동 투입이 아닌 충분한 휴식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4월부터 매주 금요일 2시간 조기 퇴근제(주당 2시간 단축)를 시행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 공백은 직무재설계와 AI 활용으로 극복하고 있으며, 콘텐츠 품질이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장시간 노동이 곧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위라벨+4.5 프로젝트 참여기업 사례 ■

(주)재담미디어 (콘텐츠 제작)	(주)이온엠솔루션 (IT 기업)	(주)유비온 (에듀테크 기업)
√ (추진배경) 원고 마감 시기 연장 근로가 반복되어 직원 피로 누적과 업무 효율 저하 → 노동시간 단축으로 건강 보호 및 업무 효율 증대 필요	√ (추진배경) 유능한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고, 인력 채용에 어려움 다 → 노동시간 단축으로 매력적인 일터 조성 필요	√ (추진배경) 사업 영역의 고도화 로 단순 작업보다는 창의성이 요구되는 작업 증가 → 초과근무 등 양적인 투입보다 창의적 문화로 변화 절실
√ (기대효과) 일생활 균형 개선 체감도 91% 업무 효율 향상 체감도 72% 전반적 직원 만족도 88% 달성	√ (기대효과) 격주 4시간 휴무 부여로 충분한 휴식을 보장 하는 일터로 변모 → 지역 인재 확보 및 이직률 저하 기대	√ (기대효과) AI 등 활용하여 반복 업무에 소요되는 노동시간은 줄이고, 핵심 업무 집중 → 콘텐츠 품질 개선 기대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주)우리밀 관계자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격주 금요일 오후 4시간 휴무제를 도입했으며, 사무직에 이어 생산직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기업이 실적 제고나 구인난 해결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고민하고 있지만, 추가 비용 발생이나 생산성 저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이 부담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권창준 차관은 “주 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일생활 균형, 그리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등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지방에 위치한 다양한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수도권과 지방, 대·중소기업 간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도 「위라벨+4.5 프로젝트」 확대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난 5월 6일에 출범한 생산성 향상 지원단과 함께 기술혁신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을 뒷받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붙임 1. 현장방문 개요

2. 『위라벨+4.5 프로젝트』 사업 개요
3. 위라벨+4.5 프로젝트 참여기업 현황
4. 노동시간 단축 우수사례(인포그래픽)
5. 차관 인사말씀

담당 부서	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진선 (044-202-7991)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주무관	박노완 (044-202-7618) 최주환 (044-202-7530) 권소현 (044-202-7543)



- ☐ 일시: '26. 6. 18.(목) 14:00~15:00
- ☐ 장소: (주)유비온(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대룡포스트타워 3차 5층)
- ☐ 참석 대상
 - (정 부) ★차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등
 - (전문가 및 노사단체) 배규식 박사(前 한국노동연구원), 윤동열 교수(건국대), 손연정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이신송 국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희 팀장(한국경영자총협회)
 - (기 업) 우수 성과 기업 3개사 대표(또는 임원) 및 직원
 - (유관기관)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본부장, 팀장 등
- ☐ 행사 내용 : ❶ 위라벨+4.5 프로젝트 추진 현황 공유, ❷ 사례 발표 등
- ☐ 세부 일정(안)

* 전체 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03	(03')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사회자(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14:03 ~ 14:06	(03')	인사말씀	▪ 차관님
14:06 ~ 14:13	(07')	위라벨+4.5 프로젝트 추진 현황 공유 등	▪ 노사발전재단
14:13 ~ 14:21	(08')	사례 발표 1	▪ (주)재담미디어
14:21 ~ 14:29	(08')	사례 발표 2	▪ (주)이온엠솔루션
14:29 ~ 14:37	(08')	사례 발표 3	▪ (주)유비온
14:37 ~ 14:57	(2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참석자
14:57 ~ 15:00	(03')	기념촬영 및 마무리	▪ 참석자



워라밸+4.5 프로젝트

'워라밸+4.5 프로젝트'로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노사 합의로 임금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

* (주 4.5일제 도입·운영 사례) 소정근로시간 단축, 소정근로시간 유지+출근의무 면제 또는
유급휴무 부여 등



지원대상

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은 30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



지원요건

- ① 노사 합의 ② 주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 단축 계획 수립
- ③ 출·퇴근 관리 ④ 임금 감소없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기업

지원내용

도입수준 (전면·부분도입), **기업규모** (50인 이상·미만)에 따라

노동자 1인당 월 20~60만원까지 지원(수준 차등),

① 생명·안전 업종, ② 장시간 노동 사업장 ③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기업 등은 선정·지원 우대(월 10만원 가산)

* 주 4.5일제 도입 후, 직전 3개월 대비 평균 노동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신규 채용 1인당 월 60~80만원을 추가 지원**

지원한도

- ① **20인 이상~50인 미만** →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규모
- ② **5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 100명



붙임 3

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기업 현황

- (규모별)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 과반(66.0%)을 차지, 300인 이상 사업장(교대제 개편)도 참여

합계	20~30인	31~40인	41~50인	51~100인	101~200인	201~300인	300인 이상
191 (100.0%)	53 (27.7%)	31 (16.2%)	42 (22.0%)	42 (22.0%)	17 (8.9%)	5 (2.6%)	1 (0.5%)

- (지역별) 비수도권 사업장이 더 많고(57.6%), 권역별로는 서울(50개소, 26.2%), 부산(25개소, 13.1%), 경기(24개소, 12.6%) 順

합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191 (100.0%)	50 (26.2%)	7 (3.7%)	24 (12.6%)	25 (13.1%)	7 (3.7%)	13 (6.8%)	9 (4.7%)	6 (3.1%)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 (0.0%)	3 (1.6%)	18 (9.4%)	4 (2.1%)	6 (3.1%)	5 (2.6%)	5 (2.6%)	8 (4.2%)	1 (0.5%)

- (업종별) 여러 업종에서 다양하게 참여, 특히 제조업(78개소, 40.8%)과 서비스업(49개소, 25.7%) 사업장이 다수

합계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보건업	정보통신업	운수업	기타
191 (100.0%)	49 (25.7%)	28 (14.7%)	78 (40.8%)	13 (6.8%)	8 (4.2%)	4 (2.1%)	11 (5.8%)

- (단축형태별) 주 2시간 이상 단축(전면도입)이 대부분(95.3%)

합계	전면도입(2시간 이상)	부분도입(2시간 미만)
191 (100.0%)	182 (95.3%)	9 (4.7%)

- (단축방식별) 유급휴무 부여(127개소, 66.5%) 방식이 다수

합계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급휴무 부여	기타
191 (100.0%)	58 (30.4%)	127 (66.5%)	6 (3.1%)

(주)재담미디어

업종 정보통신업
근로자 수 68명

설립연도 2013년 대표자 황남웅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8길 48

도입배경 직원의 건강 보호와 업무 효율성 향상 도모



단축현황 '1일 7시간 노동' 노사 합의

- 전 직원 대상(68명)
- 업무 특성상 특정 요일 휴무 대신 1일 소정근로시간 단축 방식 선택



주요성과 일·생활 균형과 업무 효율 향상으로 기업 생산성·경쟁력 제고



(주)이온엠솔루션

☑업종 정보통신업

☑근로자 수 49명

☑설립연도 2009년

☑소재지 부산시 북구 효열로 111, 4층

☑대표자 김광석

도입배경 지방 소재 IT 기업, 유능한 인재 확보·유지를 위한 매력적인 일터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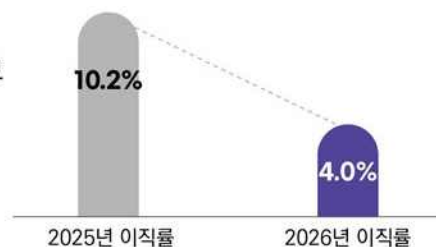
단축현황 '격주 금요일 반일 단축근무 도입' 노사 합의



- ☑ 전 직원을 2개 그룹으로 나누어 격주 금요일 오후 4시간 유급휴무를 부여
- ☑ 주 평균 38시간 체계 및 실근로시간 2시간 단축을 추진
- ☑ 연봉계약서 개정을 통해 '격주 4.5일제(격주 금요일 4시간 휴무)'를 명문화

기대효과 직원 만족도 제고와 이직 감소로 기업 생산성·경쟁력 제고

- ☑ 1인당 연간 104시간 단축
- ☑ 1인당 연간 추가 휴식시간 13일 확보
- ☑ 연간 이직률 감소



도입배경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충분한 휴식 부여로 노동의 질 개선



단축현황 '매주 금요일 2시간' 유급휴무 부여



- ☑ '전 직원(190명)' 대상
- ☑ 매주 금요일 2시간 조기퇴근제 시행
(기존) 주 40시간 ▶ (변화) 주 38시간 근로

기대효과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

노동시간 단축
1인당 연간 104시간 단축,
1인당 연간 추가 휴식시간 13일 확보



생산성 향상
업무 몰입을 통한 품질 향상으로
수주 확대 및 매출 성과 기대



□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차관 원창준입니다.

○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노사 관계자 및 전문가 여러분, 기업 담당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특히, 오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유비온 임재환 대표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난해 12월,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국민주권정부
첫 공동 선언’ 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이 단순히 노동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업간
노동시간의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격차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워라밸+4.5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 5월말 현재, 금년도 목표(220개소)의 86.8%에 해당하는
191개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주 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 참여 기업을 살펴보면, 비수도권에 위치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업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으로 다양합니다.
- 주당 2시간 이상 노동시간을 줄인 기업이 182개소이고, 주당
4시간 이상을 단축한 기업도 44개소에 달합니다.
- 특히, 눈여겨 볼 점은 노동시간 단축이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업무 효율 향상과 조직 만족도 제고, 우수 인재 확보 등으로
이어져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오늘 사례를 발표하는 (주)재담미디어와 (주)이온엠솔루션,
그리고 (주)유비온도 각자의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워라밸과 기업 성과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선 기업에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실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일생활 균형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에게 부담으로만 여겨지지 않도록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한 지원과 함께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도 함께 뒷받침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지난 5월 6일 ‘민·관 합동 생산성 향상 지원단’도 출범하였습니다.

사업주단체 등과 협력하여 스마트팩토리나 AI 기술 도입 등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의 기반을 마련하고, 직무재설계와 직업훈련으로 일하는 방식의 실질적 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 오늘 간담회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어려움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이행되고 확산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